

‘연쇄살인 충격’ 밤길 어두운 동네 범죄 불안 “가로등·CCTV 설치해주세요”

광주 올 민원 33건... 지난해 보다 3배 늘어

‘경기도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범인 검거 후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엔 ‘가로등과 CCTV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최근 실종이나 강·절도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유사범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제기된 ‘가로등과 CCTV 설치 및 교체’ 민원은 ▲북구 20건 ▲서구 5건 ▲광산구 4건 ▲동구와 남구 각 2건 등 모두 3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박모(40·광주 서구 화동동)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도난 등 절도사건이 잇따라 불안하다”며 CCTV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나모(여·32·서구 치평동)씨는 지난달 15일 광주학생이 커지고 유사범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제기된 ‘가로등과 CCTV 설치 및 교체’ 민원은 ▲북구 20건 ▲서구 5건 ▲광산구 4건 ▲동구와 남구 각 2건 등 모두 3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찰인력만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경찰 수는 모두 2천748명, 시민은 142만3천519명이다. 경찰 한 명당 518명의 치안을 맡고 있는 셈이다. 전국 평균은 경찰 한 명당 주민 507명.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가로등과 CCTV 설치 민원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 정모(32·서구 농성동)씨는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발생 직후 범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13번이나 ‘가로등을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묵살당했었다”며 “우리 동네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모 구청 관계자

강력범, 여성 노린다

광주 도심 강도·날치기 잇따라

최근 광주 도심에서 여성을 노린 날치기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 중흥동 H원룸 앞길에서 20대 초반에 보이는 남성이 김모(여·28)씨의 현금 3천원·신용카드·반지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175cm의 키에 마른 체형인 20대 초반의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50분께에는 광산구 월계동 H아파트에 사는 지모(43)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해 금반지 등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또 지난달 19일엔 광산구 도산동 E편의점에 10대 후반의 남성이 침입, 여종업원 김모(2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다. /이종형·김형호기자 golee@

‘강호순 꿈’ 때문에 화면했다

20대 여 호신도구 쟁거 성폭행 위기에서 탈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이후 납치 공포에 시달려온 20대 여성이 자신이 전남 군포 덕분에 큰 화(禍)를 모면했다. 광주에 사는 A(여·20)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수퍼 앞길에서 B(24)씨의 택시를 탔다. A씨는 단 둘이 탄 차량에 정적이 흐르자 문득 전남 군포이 떠올랐다. A씨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강호순에게 납치당하는 꿈을 꿴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운전기사인 B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A씨의 행동을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 것으로 여긴 B씨의 손에 이끌려 함께 술집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의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화장실로 향했지만, 곧바로 뒤늦게온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A씨의 머리에는 전남 납치당한 꿈을 꾸던 집에서 호신용으로 챙겨온 손톱칼이 떠올랐다. A씨는 주머니에서 이를 꺼내 대항했고 B씨가 뒤로 물러선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제안을 거절하면 납치당할까봐 따라 나섰다”고 진술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A씨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조사를 마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역대 챙긴 변호사 구속

광주지검 조사과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는 대가로 역대 5개 아파트 현직 변호사 2명 구속됐다. 광주지검 조사과는 2일 사무장에게 명의 빌려줘 개인 과산 및 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챙긴 A(41) 변호사와 사무장 B(4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07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B씨에게 명의 빌려줘 개인 과산 및 회생 사건 269건을 전담 취급하도록 하고 수임료 3억8천여만원 가운데 1억9천 600여만원을 명의 대여비 등의 명목

으로 받은 혐의다. B씨는 또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48건의 개인 과산 및 회생 사건을 처리해 받은 수임료 4억9천600여만원 가운데 1억4천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B씨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건당 50만~180만원의 수임료 중 부채증명발급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A 변호사는 “B씨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수임료의 30%를 준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신용품 인기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범행 전모가 밝혀지면서 호신용품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유동의 J호신용품 판매점에서 한 여성이 호신용 스프레이와 가스총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서울고법원장 광양 출신 이태운씨

광주·지법원장 유임

대법원은 2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광양 출신 이태운 대전고등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16명>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태운 서울 동부지법원장이 임명되며,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별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유옥서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전보됐다. 김관재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장갑주 전주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또 이상훈 제주지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됐고,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이동했다.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유임됐으며, 문용선·조영철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장병우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옮겼으며, 이한주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이동했다. 신재성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발령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순천서 수협건물에 도둑

천장 뚫고 침입했다 도주

절도범이 순천의 한 수협 건물 천장을 뚫고 내부에 침입했다가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순천시 조례동 수협 직원들은 내부면적 264.5㎡ 건물 안에 설치

된 가로 35cm·세로 50cm 크기의 천장 석고보드 5개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들은 조립식 패널로 된 천장 지붕에 가로 100cm·세로 50cm가량의 구멍을 낸 뒤 천장 지붕과 석고보드의 사이 1m 높이의 공간을 통해 기어다니다 금고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금고를 찾는 데 실패하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7718) 김동두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본점 : 061) 337-0571

빛 받으며 갔다가 경찰서 간 50대 ○...채무자의 집에 화풀이로 던진 물병이 남의 집 발코니로 잘못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50대 채권자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심모(여·51·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지난 1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U아파트 1층에 사는 정모(27)씨의 발코니에 물병이 떨어져 유리창 한 장을 파손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당초 심씨는 정씨의 집 위 층을 쓰는 채무자의 집 발코니를 향해 물을 던졌는데, 경찰에서 “채무자가 현금 5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유리창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조회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사상까지 받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주) 리바트 RITCHEN 찾고싶은 주방가구 리치엔

2007 국가환경경쟁대상 대통령상 '웰빙우수상품' 3년 연속 선정! 주방가구업계 최초, 환경마크 획득

리치엔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56-9 **062)515-2272**

“리치엔”은 리바트가 만드는 주방가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www.ritchen.co.kr

• 남/녀 직원모집 • 취급점 모집(인테리어업체)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호남동	74/74	10억	4억4870만	단층,중공주거부수일	광산동	848/41	1억2000만	6780만	전원주택	서문동	금호	5층	42	1억7600만	1억2220만
우산동	727/1432	67억2820만	30억1430만	중공주거,중공주거,중공주거	성산동	51/83	1억7800만	1억2460만	2층,역세권주택	금호동	금호	14층	24	8000만	6300만
오차동	281/231	7억4940만	4억1980만	우산중공주거,중공주거	중흥동	39/47	8880만	498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월계동	금호	15층	34	1억5000만	7350만
남양동	290/82	5억4700만	3억2300만	단층,중공주거	중흥동	48/53	1억1920만	688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월계동	대신	8층	32	7500만	5250만
오차동	50/52	1억1110만	903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신기동	70/97	1억8950만	1억1000만	2층,신기,고교인근	달곡동	삼호	2층	37	1억3800만	9680만
수기동	50/103	4억2880만	2억384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동명동	24/28	8770만	482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회산동	대관동리	14층	24	4000만	2800만
양산동	362/994	41억4000만	16억980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용봉동	89/35	8820만	8150만	2층,유원지,중공주거	내남동	해대	2층	32	1억1000만	7700만
자산동	151/213	5억4540만	2억830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월산동	44/38	8150만	4565만	단층,월산,중공주거	우산동	우산	6층	24	5100만	3570만
매곡동	11	6000만	2220만	1층,중공주거	중흥동	42/48	9520만	5330만	2층,유원지,중공주거	봉선동	우산주거	15층	24	5500만	3860만
우산동	24/7	2억5200만	1억193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장성동	60/32	6000만	2810만	단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15층	24	5500만	3860만
월산동	80/7	2억2200만	2억440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백운동	103/64	3억8220만	1억8610만	복합,중공주거,고급주택	봉선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월산동	183	4억2000만	1억2900만	시골,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화성동	8/4	9400만	2895만	1층,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마곡동	48/9	2억6000만	74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신성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
대인동	28/8	1억5700만	7000만	1층,중공주거,중공주거	대인동	43/50	9650만	6760만	2층,중공주거,중공주거	북문동	우산주거	23층	32	9800만	6860만